

여기를 누르시면 인쇄가 시작됩니다.

empas메일

박영숙

보낸 사람	이은희
받는 사람	박영숙
받은 날짜	2006년 06월 17일 07시 36분
첨부 파일	2004 발간사.hwp 05보고서-이사장님글(초안).hwp
편지 제목	한국여성재단 사업보고서 발간사

이사장님,

기획사업팀의 이은희입니다.

광주 다녀오신 일 등 무리하시는 가운데, 주말에까지 일감을 드려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05년에 수행된 파트너기관의 사업 보고서를 다음 주에 출간하고자 준비하던 중, 전년도 보고서 양식에 따라 이사장님과 배분위원장님의 발간사를 준비하여 앞부분에 게재하려고 합니다.

사업보고서를 만드는 배분팀에서 이사장님의 발간사 초안을 작성하여 총장님과 제게 검토해달라 하였으나 이사장님께서 직접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월 캠페인에서 모금한 재원을 올해의 계획과 같이 앞으로 정기신청공모사업에 쾌척하게 된다면 한국여성재단 파트너기관 사업보고서는 향후 5월 집중모금캠페인의 소개자료로서 매우 유용하면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사장님께서 직접 검토해주시는 게 좋겠다 한 것입니다.

문서는 두 가지로 보내드립니다.

하나는 작년에 제작한 2004년 보고서 발간사이고(참조용으로 보내드립니다), 다른 하나는 올해 제작하고 있는 2005년 보고서의 발간사 초안입니다.

검토하시고, 19일(월) 오전까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말, 모쪼록 즐겁게 보내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이은희 드림

=====

(재)한국여성재단 기획사업팀장

"우리 인터넷, Daum" <http://www.daum.net> 『평생쓰는 무료 한메일넷』



차운전자 필수 신용카드 - 평생 연회비 면제(마감임박) go
쌀수록 자동차보험료 할인 및 푸짐한 혜택 - 하나 다움다이렉트 카드



사진, 동영상 완벽 도우미 go
더 멋지게 편집하고 한메일로 바로 보내세요.

<2005 한국여성재단 파트너기관 사업보고서 “발간사”> 초안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로 인해 양극화 현상이 하루가 다르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빈부의 격차와 소득재분배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무한경쟁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인간성 상실에 따른 슬픔을 겪어야 한다는 현실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적인 아픔을 적극적으로 끌어안고 건실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움직임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안적인 가치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사회적 담론으로써 돌봄과 포용의 여성성의 가치가 공동체의식의 핵심가치로 재조명되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과 여성인력의 발굴 및 개발을 위해 돌봄노동의 사회화가 거론되며 531지방선거에서 여성후보 출마율이 2배 이상 증가하며, 대한민국 역사상 여성총리가 처음으로 탄생한 역사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여성의 비약적인 발전은 한국사회의 시대적 조류에 따라 자연스럽게, 또는 단 한순간에 몇몇 개인들의 의지에 의해 불현듯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도 없을 줄 압니다. 이 뒤에는 수십년간 빈곤과 폭력, 불평등 등의 사회구조적인 과제를 진단하여 건강한 대안을 꾸준히 생산한 민간 여성단체들의 열의와 헌신이 있었고, 이는 곧 시대적인 요구와 실천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재단은 민간 여성공익재단 1호로써 재정적으로 열악한 여성단체 및 기관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지금까지 22만 여명의 기부자들의 참여로 순수 민간기금인 한국여성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재정적 지원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들과의 공고한 파트너십을 통해 여성공익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네 번째로 발간되는 한국여성재단 나눔의 열매 『2005 한국여성재단 파트너기관 사업보고서』는 작년 한 해 동안 한국여성기금 약 3억여 원으로 지원된 34개 한국여성재단 파트너기관들의 활동을 정리한 자료집입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민간 재원이 공공 재원과는 다르게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

2005년 3월 19% (총재원 100%)

를 발굴 · 지원하는 민간 여성공익활동의 훌륭한 성과들을 생생하게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보고서가 민간 여성공익활동을 위한 유용한 정보이자 훗날 역사적인 기록으로 의미있게 활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한국여성재단은 앞으로도 성평등한 사회조성과 여성복지 향상을 위한 활동들이 우리 사회의 발전적인 미래상을 구현하는데 풍성하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 많은 파트너기관들과 더 많은 기부자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 땅의 딸들과 아들들에게 밝은 미래를 선물하기 위해 애쓰신 한국여성재단 파트너기관들의 모든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를 드리며, 재단과 함께해온 모든 분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박영숙

<2004 한국여성재단 파트너 기관 사업보고서 “발간사”>

디지털 시대라는 사회적 현상만큼이나 여성 공익발전의 질적인 도약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 40여명의 여성 국회의원을 진출시키는 쾌거를 이뤄냈는가 하면, 그 이후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고 급기야 반세기동안 요원하게만 보였던 제도적 차별의 마지막 상징, 호주제까지 폐지됐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그동안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분야까지 여성들의 두드러진 활약상이 곳곳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21세기가 여성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 점차 입증되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이러한 여성의 비약적 발전이 시대적 조류에 따라 자연스럽게, 또는 단 한 순간에 몇몇 개인들의 의지에 의해 불현듯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도 없을 줄 압니다. 이 뒤에는 늘 정부와 균형된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수십년간 빈곤과 폭력, 불평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건강한 대안을 꾸준히 제시해온 민간 여성단체들의 헌신적인 활동이 있어왔습니다.

한국여성재단은 민간 여성공익재단으로서, 재정적으로 열악한 여성단체 및 기관들이 정부로부터 독립된 순수성을 지키면서 때로는 정부 정책의 감시자로서, 때로는 동등한 조력자로서 견제의 역할과 국가 정책 사각지대의 보완의 역할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민간 재원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여성재단은 그동안 여성공익활동에 뜻을 함께 하는 22만여명의 일반 시민들을 만나왔고, 이 소중한 기부자들이 마음과 마음을 모아 조성해준 기금이 바로 재단 내 민간여성기금인 한국여성기금입니다.

올해 세 번째로 발간되는 한국여성재단 나눔의 열매 <2004 한국여성재단 파트너기관 사업보고서>는 2004년 한 해 동안 한국여성기금의 열매 약 4억여 원으로 지원된 38개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들의 헌신적인 여성공익활동의 활약상을 정리한 자료집입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민간 재원이 공공재원과

는 차별적으로 다양한 여성공익 영역을 개척하면서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는 훌륭한 민간 여성공익활동의 성과들을 생생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보고서가 민간 여성공익활동을 위한 집적된 자료로 많은 여성관련 기관들이 다양하게 활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제도적인 여성공익 발전은 이미 많은 부분 성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적 변화와 사회의식 사이의 차이를 채울 수 있는 좀더 광범위한 여성공익활동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재단은 앞으로도 성평등한 사회조성과 여성복지 향상을 위한 활동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상의 정치로, 또 깊숙이 스며든 일상적 문화의 행태로 드러내는 그 날까지 더 많은 과제들을 발굴하고 더 많은 파트너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04년 여성공익활동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애쓰신 한국여성재단 파트너 기관들의 모든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를 드리며, 재단과 함께 해온 모든 분들의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박영숙